

A group of children are sitting in a hole in a mud wall. The children are of various ages and are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wall is made of brown mud and has a rough, textured appearance. The hole is roughly rectangular and is framed by a wooden beam. The children are dressed in casual clothing, including t-shirts and pants. The overall scene is one of poverty and hardship.

tim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두란노해외선교회

Winter 2021 Vol. 28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V, VI
On-line Mission Strategy Forum V, VI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28:19

CONTENTS

2
홀으시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선교
확증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한총희 목사

Special Issue

3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6가지 선교대응방향

화상전략포럼 5차
긴급구호,개발,회복사업

5
성령님이 이끄시는 총체적선교
RC 발제 이성희 선교사

16
총체적 선교의 중심은 말씀을 통한 “영혼구원”
논찬 이석희 선교사

17
선교지의 선한 사마리아인
현장발제 김현우 선교사

24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화상전략포럼 6차
난민, 이주민 선교 새전략 구상

26
오래전 꿈꿨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때
RC 발제 손충성 선교사

32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난민, 이주민 선교
현장발제 한갈렙 선교사

44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Global Issue

46
미얀마 땅에 민주주의가 꽃 필 때까지
이상오 선교사 / 미얀마

48
아프가니스탄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차요셉 선교사 / 타지키스탄

Home Issue

52
충성과 정결함으로 사명의 등불을 지켜내자
Maxim Kolbin 선교사 / 러시아

54
들을 때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
Valeriy Kim 선교사 / 러시아

〈통권 제 28호〉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인 이재훈 편집장 한총희 편집인 기획동원팀 디자인 인권앰파트너스
발행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3층
전화 031-336-1042 웹사이트 www.tim.or.kr 이메일 tim@tim.or.kr

흐으시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선교 확증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50여개 국 43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30년이 된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맡고 있는 필자의 요사이 목상 초점은 현 국제정세를 볼 때 과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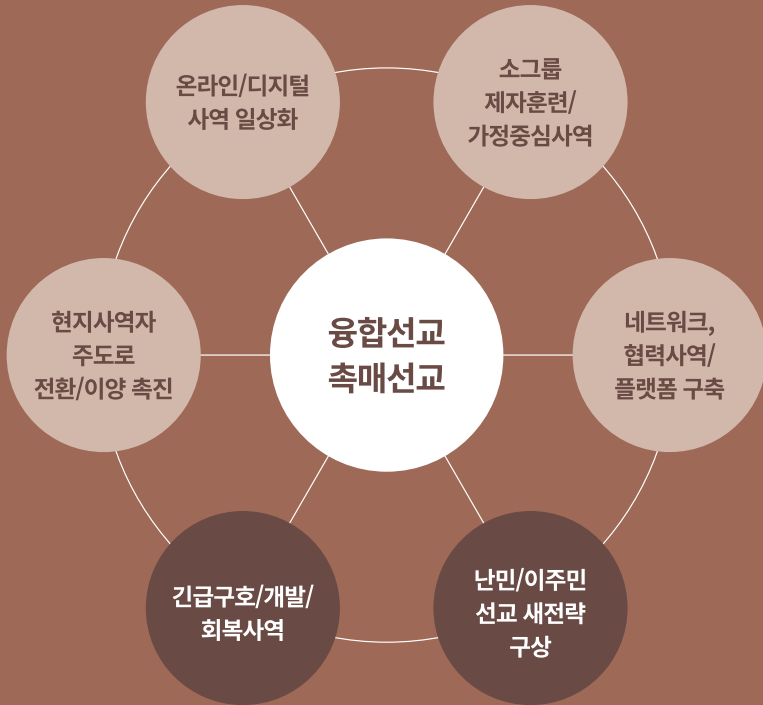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큰 변화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고 믿는다. 이제 하나님은 ‘국가주권’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자유로운 예배와 신앙을 억압해 왔던 ‘국가 이슬람주의’와 같은 철용성을 흐으시고 흔드신다.

난민과 이주민, 피난민 등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약 8천만 명이나 된다. 수십만, 수백만의 아프간 엑소더스(탈출)도 우려된다. ‘흐으심’의 의미는 자국에 있을 때 엄격했던 국가 이슬람주의가 타국에서는 모국의 주권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복음전파)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흔드심’의 의미는 이들이 자국에서 느꼈던 공동체의 압박과 이슬람의 규율적 삶에서 벗어나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정체성과 세계관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은 본국 귀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슬람 신앙보다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경계가 느슨하다. 가정 단위의 전도나 가정예배, 그

들의 상황(context)을 고려한 복음 전도를 위한 맞춤형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결국 현재의 모든 국제 정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주체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Mission of God)’라고 한다. ‘Missio’는 ‘보낸다’는 뜻이다.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낸다는 게 본래의 의미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구원사역의 핵심에 이미 선교가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미 도래하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더욱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곳이 선교지이다. 외국을 가는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이주민, 다문화 사역,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화된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접속이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모든 종교, 모든 인종과 민족, 난민과 이주민, 남녀 노소 등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축구나 농구처럼 이제는 토탈 선교, 올코트 프레싱(전방위적 압박수비) 선교를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이 선교 현장으로 그대로 전달(온오프 하이브리드)되고 사용되는 융합선교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민족과 국가, 인종(난민)과 선교사(한인과 현지) 사역의 경계와 구분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선교(crossover mission)’를 해야 한다. 이제 부르심과 보내심은 몇 사람이 아니라 온누리공동체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온누리공동체 전체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6가지 선교대응방향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진행 일정 및 주제

- 1월 현지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1/27)
- 2월 소그룹 제자훈련/가정중심사역 (2/17)
- 3월 온라인/디지털 사역 일상화 (3/24)
- 4월 네트워크, 협력사역/플랫폼 구축 (4/28)
- 5월 긴급구호/개발/회복사역 (5/26)
- 6월 난민/이주민 선교 새전략 구상 (6/23)

On-line mission strategy forum :

Changes in the mission landscape and six ministry directions during the pandemic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6가지 선교대응방향



SPECIAL ISSUE

화상전략포럼 5차 - 긴급구호, 개발, 회복사역

성령님이 이끄시는 총체적선교 RC 발제 이성희 선교사
총체적 선교의 중심은 말씀을 통한 “영혼구원” 논찬 이석희 선교사
선교지의 선한 사마리아인 현장발제 김현우 선교사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화상전략포럼 6차 - 난민,이주민 선교 새전략 구상

오래전 꿈꿨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때 RC 발제 손충성 선교사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난민, 이주민 선교 현장발제 한갈렘 선교사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Holistic mission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이끄시는 총체적선교

RC 발제 이성희 선교사 / 스리랑카

이번 ‘코로나19 이후 선교 환경변화에 대한 TIM 설문조사’의 결과로 설정된 6가지 방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교 환경 내 역할 변화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드러낸다. 특히 구호(긴급구호) 사역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인도차이나/인니, 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들은 구호 사역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지역에는 ‘총체적 선교(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 개발선교=CHE)’로 설명되는 농업, 위생, 보건 등의 분야가 고르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긴급구호, 개발, 총체적 선교, 회복사역’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들은 일부 사역이 아닌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언급된 사역이 별개가 아닌 서로 연결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발제에서는 각 사업의 소개와 선교현황, 그리고 선교제안을 정리했다. 총체적 선교(CHE)에 대한 설명과 선교학적 이해도 정리했다. 긴급구호, 개발, 총체적 선교(사업)는 NGO단체의 주요 사업이고, 선교사들의 경우 NGO와 협력하여 진행하기 때문

에 기독교 NGO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회복사역은 해석되어 별도로 다루지 않고 총체적 선교에서 이해될 것이다.

긴급구호, 개발, 총체적 선교란?

• 긴급구호

분쟁, 자연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여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복구와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개발(지역개발)¹

기존의 지역개발은 인간의 총체적 행복과 환경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배제한 채 경제적 수익성과 소득 향상에만 초점을 둔 결과 세대 간, 부문 간의 불균형

1. 유기선/로고스경영연구/제8권 제2(2010) p.193-214/한국로고스경영학회

을 초래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 연계성, 장기적·지속적 지역개발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을 지역민이 공동체적 삶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주체와 부문 간의 상호연계가 전제된 총체적 개발에 대한 관점이 대두되었다.

총체적 지역 개발은 본질적으로 각 개발 전략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지역에 부합되어야 하고, 사회구성원의 기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 자치주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한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구성원 전체의 개발, 분배, 자립, 고용창출, 구원된 인간의 책임과 존엄성 등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총체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성경적 관점의 총체적 개발 목적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성경적 개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지역 내에 모든 피조세계의 실존적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합당한 상태로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진 부분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다루는 총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민들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사람의 육체적, 정치 사회적, 경제적, 영적 정신적인 면의 총체적 일관성과 연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총체적 선교(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개발 선교)²**

이 전략은 현지인들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어 주민 개인들의 전인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 전략은 성경의 선교 명령(마 28:19)과 이웃 사랑의 계명(마 25:36)에 근거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영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회복을 통한 전인적 구원으로 인도한다. 교육과 훈련이 사역의 핵심이며 복음전파 및 양육과 함께 보건위생, 정수, 농업, 목축, 가정, 정서, 환경, 사회, 자활사업 등의 다양한 교육을 함께 병행한다.

2. CHE선교회 웹 페이지





CHE의 원리는 통합적,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개발사역, 배가 사역이다.
스스로의 필요를 해결하도록
훈련받은 현지인이 또 다른
이웃 현지인을 가르쳐
계속되게 함으로서 배가의
효과가 나타난다.

CHE의 원리는 통합적, 지역사회 주인의식, 개발 사역, 배가 사역이다. 전인적 필요인 영적 영역을 핵심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시키고, 그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훈련함으로써 처음부터 현지인들이 사역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며, 스스로 필요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훈련받은 현지인이 또 다른 이웃 현지인을 가르쳐 계속되게 함으로서 배가의 효과가 나타난다.

CHE의 시작은 먼저 훈련받은 훈련팀(4~6명)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지역사회 지도자에게 변화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지역사회개발 위원회(CHE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한다. 그 후 CHE 위원회가 선발한 요원들을 훈련시킨 후 요원들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영적, 신체적 주제들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복음 전파가 이뤄지고 신자그룹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개척된다. 현지 교회들과 함께 시작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회의 부흥도 경험하게 된다. CHE는 삶의 변화와 함께 영적인 변화도 가져온다. 질병 발병률과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식품 생산은 증가하여 평균 5년이 지나면 지역사회 자생능력이 배양되어 자발적 배가운동이 벌어진다. 영적 변화로는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제자 훈련과 복음전도 멘토링이 지속되며 소규모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청지기 정신이 고양된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제자훈련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 총체적 선교의 선교학적 이해

총체적 선교³의 탄생

르네파딜라(Rene Padilla)의 총체적 선교는 남미의 사회정치적 상황 안에서 탄생한 것으로, 교회의 임무로서의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의무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진영의 남미의 복음주의 신학자 르네파딜라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 복음주의 진영

3. 복음과 선교 제46집 199-231/르네 파딜라(Rene Padilla)의 총체적 선교연구/ 박보경(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신학)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총체적 복음에 근거한 총체적 선교

파딜라의 총체적 선교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총체적 복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었다. 파딜라는 복음전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세상과 떨어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죄도 단순히 개별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를 수 없으며 단순한 영혼구원의 사업이 아님을 주장한다. 즉 총체적 선교는 인간의 전 존재, 영적, 물질적, 육체적이며 동시에 정

신적,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의 전체적 재건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과 연결된 모든 관계(자신, 하나님, 타인, 창조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변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파딜라는 이 총체적 복음 이해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세속화라고 주장하며, 철저하게 회개로 세속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청한다.

교회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교회의 부름은 지금 여기에서 교회의 존재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4. 1999년 미가 네트워크가 결성됨. 1999년 4월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2001년 옥스퍼드에서 총체적 선교에 관한 미가 네트워크 1회 대회가 열렸다. 당시 250여 개의 단체들이 모였고 파딜라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현재까지도 증경회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체적 선교의 확산과 실천

1999년 미가 네트워크⁴가 결성되면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의 총체적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단체들이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미가 대회의 결과물로 발표

된 미가선언문(Micah Declaration on Integral Mission)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구분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이 둘이 서로 분리할 수 없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4가지 총체적 선교의 실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우선적으로 돌보고, 둘째, 지역교회를 통한 실천을 강조하며, 셋째, 인권옹호 사역을 강조하며, 넷째, 총체적 제자도(integral discipleship)의 실천이다. 특히 미가 선언문은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위한 노력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도덕적, 지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 차원의 변혁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한다.

긴급구호, 개발, 총체적 선교의 상황

• 기독교 NGO, NGO선교

전통적 방식의 선교사역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NGO선교 혹은 기독교 NGO사역이 그 대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한국기아대책, 월드비전 등의 기독교 NGO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지역개발사역/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2019 국제 NGO선교포럼에서 ‘NGO선교란 교회나 선교단체가 파송한 공식 선교사 대신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포교를 표방하지 않으면서 피선교국에서 순수하게 사회의 공익을 위해 자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외에 선교사들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NGO에 참여하기도 한다. 현지인을 위한 사역의 합법화와 현지 기독교인 및 회심자들의 고용 창출을 위한 거주비자 획득의 목적도 존재한다.

• 기독교 NGO의 성경적인 관계⁵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 간의 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격에 확장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원리를 적용할 때 NGO활동 자체만으로도 선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기독교 NGO 사역기관

월드비전

전 세계 33개국 116개 사업장과 국내 30개의 사업장에서 국제개발사업, 국제구호사업, 국내사업, 북한사업, 옹호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5. 기아대책 창립 30주년 기념 / 2019국제 NGO선교포럼 / 개발협력과 NGO선교



지역개발 사례 - 스리랑카 바하라이 지역의 친환경 농업 사업⁶(2013.03~2015.06)

스리랑카 동부 바티콜라 군 내의 바하라이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치열했던 곳으로, 쓰나미 피해로 인하여 정부와 NGO단체들의 긴급구호 활동이 이어졌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월드비전이 2년간 재건복구사업을 실시했고, 2013년부터 15년간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단기간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르게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 농업 요소를 소개하고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무경운, 자연멀칭, 토착미생물 활용, 가정에서 퇴비 만들기, 재래종자 이용 등의 5가지 요소를 교육, 적용하도록 했다. 선도 농가, 정부 관계자, 현지 대학 연구자 등에 기술훈련이 시행됐고, 그 후 훈련받은 인원들이 11개 마을의 수해농가 600가구에 농업 방식을 도입했다. 월드비전은 재래종자와 우물을 제공하고 모니터링 및 자문을 진행했다.

사업의 결과로, 기존 농업 방식에 비해 농업 지출 비용이 65% 감소한 반면, 생산성은 45.2% 증가했다. 농가 단위에서 친환경 농산물 확보율은 2013년 1월 20%에서 4년 새 90%까지 증가하였다. 더불어 규칙적인 식사 횟수가 2013년 1월 74%에서 2015년 6월에 97.2%까지 향상되었다. 섭식 다양성은 42.3%에서 2015년 6월 71%로 증가했으며, 농업 생산량이 대폭 향상되어 기존 방식으로 2차례 수확하던 농산물이 4차례까지 수확이 가능해졌다. 생산비의 절감과 생산량의 증가는 일정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량이 적어 여성 농부가 적용

하기 수월해지면서 여성의 권리 증진과 더불어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더멋진세상

더멋진세상의 핵심사업은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인도적 지원사업(긴급구호 및 난민)이다. 지난 10년간 18개국 22개 마을에 식수, 위생, 보건, 농축업,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발 등의 사역과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인 긴급구호 사역으로 13개국을 지원했다.

CHE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긴급구호, 조기복구 및 재건사업을 진행하고, 나아가 지역개발사업과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등 총체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TIM과도 협력하여 스리랑카의 멋진 마을 조성, 몽골의 CHE, 인도네시아의 CHE와 적정기술, 우간다의 인도적 지원, 말라위의 적정기술, 르완다의 적정기술, 세네갈의 적정기술, 부르키나의 적정기술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결과로, 기존 농업 방식에 비해 농업 지출 비용이 65% 감소한 반면, 생산성은 45.2% 증가했다. 농가 단위에서 친환경 농산물 확보율은 2013년 1월 20%에서 4년새 90%까지 증가하였다.

6. 국제개발협력연구 제7권 제2호(2015) : 41-78

긴급구호 사례 - 스리랑카 라뚜갈러 베다마을(2020년 4월 시작, 현재 진행중)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선교지역들에 통행금지령이 실시되면서 현지인들의 생존에 위기가 닥치자 긴급구호가 진행되었다. 4월부터 2달에 걸쳐 140가구에 생활식품키트를 지급하는 1,2차 긴급구호를 진행했고, 8월에 3차 긴급구호로 농민들의 옥수수 농사를 위한 옥수수 종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코로나로 옥수수 종자를 구입할 비용이 없는 농민들을 위해 옥수수 종자를 선지급하고 농사 수확 후 종자 구입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환금은 종자 지원 및 농업 관련 교육, 자녀교육 등 라뚜갈러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했다.

옥수수 농사 사업의 시작은 어려웠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청을 받아 명단을 작성하고 비용 반환에 대한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10명의 위원을 선출해 옥수수 농사 준비부터 심는 작업, 농사 관리 등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위임했다. 옥수수 농사를 마칠 때 농사를 지은 신청자에게 격려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일부는 받아 간 옥수수 종자를 농사에 쓰지 않고 팔았다는 신청자도 있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조직된 위원회가 책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했으나 현지 사역자가 위원들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현지 사역자와 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4월말 수확한 옥수수를 모두 판매하여 옥수수 종자 구입비를 반환했는데, 총 금액의 90%가 회수되었다. 다음 단계는 지원받은 주민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고 주민들 중 10여 명을 선발해 양육과 현지 농업전문가를 연결해 농업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NGO 선교 사역의 장점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단한 국가(공산주의, 이슬람, 힌두교 국가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열매 맺기가 어렵다. 제국주의적 선교를 경험한 제3세계 국가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복음전파보다 구호, 교육, 기술, 의료 등 그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NGO활동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줌과 동시에 간접적인 선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기독교 NGO, NGO 선교, 한국 선교사들의 사업에 대한 논의사항

NGO, 선교 단체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설립 목적이나 핵심가치가 존재하며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목적을 이뤄가고 있다. 그럼에도 다음의 내용은 생각해 보게 된다.

- ① 구호, 개발에 관한 사업은 전문 인력이 요구되기에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 ② 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적인 취지와 상반된 물질주의적 방식의 사업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후원과 기관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사역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선교사의 의도가 지역사회 현지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선교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 분야 등의 물질 중심의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 ④ 선교 사역에 제약이 심한 국가에서는 활동에 신중을 기하여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국내외 여론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닫힌 국가(공산주의, 이슬람, 힌두교 국가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열매 맺기가 어렵다. 제국주의적 선교를 경험한 제3세계 국가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복음전파보다 구호, 교육, 기술, 의료 등 그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NGO활동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줌과 동시에 간접적인 선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긴급구호, 개발, 총체적 선교를 위한 제안

• 온누리 내부 자원 활용

온누리교회에는 선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재정적인 내부 자원이 풍부하게 포진되어 있다. 그중 긴급구호, 개발, 총체적 선교와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해 본다면 더 멋진 세상, 플랫폼(2000선교본부에서 현재 준비 중), 적정기술 모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미 더 멋진 세상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TIM선교사도 존재하며, 적정기술 모임을 통해 인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외부단체와 네트워크, 연합

국제 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 구호개발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140여 개 NGO단체들의 연합체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회원단체에는 약 1만여 명의 상근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96개국에서 약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협력 NGO단체들에 소속된 수 만명의 현지인 활동가들과도 연계하여 해외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KOICA, 현지 파견 NGO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를 위한 활동, 현지 NGO의 지역개발활동,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한다. 동서문화개발 교류회(ECC)도 회원단체로 인도네시아, 몽골, 니카라과, 스리랑카 등으로 월드프렌즈 봉사단(전문인 자비량 또는 단기)을 파송하고 있다.

KOICA

KOICA는 종교적 성향을 띠지 않으며, 대부분의

NGO나 타기관들이 해외 기관 사업비 등을 KOICA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지원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

새마을 세계화 재단은 한국형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모델로 정립, 보급할 전진 기지 역할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 연수, 새마을 지도자 및 봉사단 파견 등의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있으며, 세네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지에 사업 지역이 있다.

Global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Network

전 세계 도시빈민가와 농촌 빈곤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CHE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연합으로, CHE 네트워크 회원은 136개국 869개 조직을 대표한다. CHE는 개별 사역을 강화하고 전세계 CHE 사역의 확장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용한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제한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며 복음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상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으며 facilitator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 현지 자원 활용

외국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현지에 축적된 정보와 기술력 그리고 기술 이양을 받은 현지인 전문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지 정부기관과 현지 전문가의 협력을 요하는 것으로, 국가 간 이동 규제 시에도 가능하며 현지인이 현지인을 교육하고 기술을 이양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 TIM에서의 사역에 대한 규정이 필요 (본부, 현장 선교사)

- ① 긴급구호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이에 따른 지원 규정과 재정확보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현장에서 TIM선교사가 사역을 진행 시 협력기관 등에 재정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만큼 선교사는 영적, 인격적, 관계적인 성숙함을 갖춰야 하고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③ 촉매선교, 융합선교, 협력선교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TIM에서 각 사역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사역에 맞는 평가를 해야 한다.
- ④ 협력사역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역을 위한 협력만이 아닌 함께하는 단체의 방향과 요구에도 성실히 임할 때에 진정한 협력사역이 가능해진다.
- ⑤ 언급된 사역들이 NGO 사역에 국한되고 영혼구원과 제자훈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 성경적인 관점과 현장의 상황, 단체의 입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지원 개발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협력사역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역을 위한 협력만이 아닌 함께하는 단체의 방향과 요구에도 성실히 임할 때에 진정한 협력사역이 가능해진다.

총체적 선교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었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역에 있어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역에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앞서 다루었던 제자훈련, 네트워크 협력사역, 현지 사역자 주도로의 사역 전환 등이 총체적 선교에도 모두 요구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위해 기관과 단체가 연합하여 각 전문 분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The essence of Holistic mission is “Soul Salvation” through words

총체적 선교의 중심은 말씀을 통한 “영혼구원”

RC 발제 이석희 선교사 / 인도네시아

기존의 지역개발은 부의 증진이 곧 풍요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의 총체적 행복과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이 배제된 채 경제적 부의 증진 및 소득 향상에만 초점을 둔 결과, 지역 간, 세대 간, 부문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총체적 성경적 지역개발은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며 삶의 풍성함을 만끽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지역 내에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합당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발전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은 결국 또 다른 영역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예시:태양광 설치로 많은 산림파괴 등). 경제 개발 발전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므로 개발, 발전과 회복의 적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는 결국 무질서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에(엔트로피 증가) 무질서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과제이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총체적 선교 논평

이 전략은 성경의 선교 명령(마28:19)과 이웃 사랑의 계명(마25:36)에 근거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영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회복을 통한 전인적 구원으로 인도한다.

총체적 선교는 인간의 전 존재, 영적, 물질적, 육체적이며 동시에 정신적,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존재로서 인간 존재의 전체적 재건(reconstruction)을 의미하며 개인이 자신과 연결된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변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총체적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 하며 총체적 선교의 중심은 곧 말씀을 통한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되며 제자화를 통한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마28:19-20). 영혼 구원이 없는 총체적 선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눅6:49).



A Good Samaritan in mission field

선교지의 선한 사마리아인

현장발제 김현우 선교사 / 케냐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전 세계 국가가 폐쇄되고 여러 형태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선교사는 선교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이며, 이것이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구호 활동은 제3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구제 활동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단체에서 해오고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긴급구호는 가난한 지역에 대한 구제활동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3국을 향한 구호활동은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요구되고, 긴급구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급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펼쳐는 활동이다.

구호활동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지역개발과 자급자족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처를 통해 형성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까지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접근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긴급구호 사역이 이뤄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긴급구호

• 긴급구호

‘긴급구호’란 재해나 재난 따위로 매우 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재빨리 도와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는 지진·태풍·홍수·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하며, ‘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인해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아이티, 아체, 네팔, 일본 지진 등 재해의 피해 수준이 상당한 경우 재난으로 정의한다. 인간이 감당하기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방관이나 부주의로 인한 재난은 ‘인재’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는 어디에 속할까? 재난에 속하지만 국가마다 그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재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는 전 세계가 비상상태에 직면한 ‘재난’에 속한다. 가난한 나라의 경우 전염병은 곧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막을 방법과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인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긴급구호 활동을 지진·쓰나미·홍수·태풍·폭설 등의 자연재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식량위기 지원, 분쟁 및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한 지원 등으로 분류한다.



• **재해나 재난이 있는 지역을 왜 도와야 하는가?**

구호활동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재난, 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만 늦어도 인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하게 도울 수 있는 부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코로나가 재난인가?**

2020년 6월 케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30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중 96%가 아주 적은 수입이거나, 전혀 수입이 없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69%가 수입 감소, 43%가 수입 상실, 22% 굶주림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조사 대상자 중 84%가 코로나를 아주 큰 충격(A Great Impact)라고 응답하였다. 올해 2월 보고서에서 10가구 중 6가구가 충분한 하루 세끼 식사를 하지 못했고, 2가구는 전혀 음식이 없다고 보고했다. 강간 등의 범죄가 7% 증가했고, 18세 미만 여아들이 카운티 별로 30~40% 임신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는 재해가 아닌 재난으로 봐야 할 것이다.

• **구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가?**

프랑스 자유무역학자인 끌레드 프레데릭 바스티아(Claude Frdric Bastiat)는 ‘유리창이 깨진 이발소’를 예를 들어서, 이발소의 유리창이 깨진 것은 이발사에게는 악재지만, 유리 공급 업자에게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에도 호재가 된다고 말한다. 즉 파괴는 일회성이지만 이 파괴가 사회에 가져오는 효과는 크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 **어떻게 도울 것이며, 대상은 누구인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로 케냐 나이로비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한 NGO 단체가 식량을 나눠주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싸움이 났고 결국 한 여성이 사망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코로나로부터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각 가정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70%가 저축됨으로써 이 의도가 빛나가지도 했다. 그러므로 구호활동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구호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복음 전파의 원리에 적용한다면, 재난은 악재이지만 한 편으로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나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번엔 케냐에서는 코로나로 락다운(Lockdown)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도시에만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시골 지역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서야 지급되었다.

이미 이 지역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끼니도 채우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았는데, 정부 지원금이거나 NGO의 손길도 이곳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에게는 한두 번의 기회지만, 그들의 필요와 더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열매가 없다고 전파를 하지 않을 것인가? 긴급구호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계기를 마련하고 어떤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을 것인가는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케냐 키캄발라에서의 구제활동

6년 전 케냐 라무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슬람 극단 조직인 알샤밥 단체에 의한 큰 테러 사건이 있었다. 폭발물로 인해 경찰서와 은행이 테러 당했고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알샤밥단체는 마을을 다니며 교인들을 위협하거나 죽였고, 기독교인 남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란 경고를 보냈다. 그 소식에 모든 교인들을 타교회로 한 달간 피신시킨 일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교인들에게 위급상황에 드는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지원하였는데, 구제와 복음을 연결 시키지는 못했다. 현재 그 교회의 교인들은 다 떠났으며, 목회자도 부재중이다. 이번 일로 구제와 복음을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케냐에서는 선교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도 크게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이곳 해안가 무슬림이 많은 지역은 무슬림의 영향으로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한 번은 교회 청소년들을 통해 각 집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나눠주려고 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빼앗는 일이나 싸움이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한 일로 인해서 케냐 정부에서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구제 활동을 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식료품 구제활동을 위해 먼저 교인 40가정과 타교회의 교인, 무슬림들 중 가난한 40가정을 선정하였다. 사역자와 청소년들이 팀을 나누어 봉사할 청소년들을 선발했고, 이들을 통해 일주일에 1번씩 각 가정에 식료품(4일의 분량)을 전달했다. 식료품을 전달하기 전,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교육을 하고 3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

구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겠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4명이 교회를 출석했고, 음식을 더 주지 않자 오지 않았다. 구제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은 다녀와서 봉사과 복음 전파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회에 정착하고 비대면 예배의 각 구역별 리더자가 되어 예배를 인도하는 등 믿음이 자라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이 구제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이 드문 편이다. 그러나 구제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은 믿음이 더 자라나고 제자화까지 이루는 것을 본다.

개발

• 개발이란?

긴급구호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복구 및 재건 사업 등을 말한다. 또는 현지 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 지역사회가 다시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발에는 대표적으로 식수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이 구제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이 드문 편이다. 그러나 구제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은 믿음이 더 자라나고 제자화까지 이루는 것을 본다.

위생사업, 보건 및 영양사업, 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소득증대사업, 농업사업, 도로 및 주택재건사업 등이 해당된다.

•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CHE선교를 도입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케냐의 경우 많은 선교사들이 우물 사역을 위해 우물을 파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 1년도 채 안 되어 버려진다고 한다. 어느 지역은 식수 문제와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을 설치했지만 그 후 태양열 패널은 도둑맞고 사역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 이태리 선교사는 어느 지역에 우물을 파기 위해 CHE를 사용했다. 매주 동네 사람들을 불러 교육하고 우물을 파야겠다고 결심하는 데 2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돈을 걸어 1년간 우물을 팠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팠기 때문에 지역에서 스스로 우물을 관리한다고 했다.



필자의 경우 라무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판 적이 있다. 우물을 파기 전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잘 하는 조건으로 교회 목회자의 책임 하에 우물을 판 것이다. 그러나 1년 후 고장 난 펌프를 수리할 비용이 부족하자 자신들의 방식으로 손 도르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필자의 센터가 있는 지역 도로는 포장도로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늘어나 도로를 보수하기로 결정했다. 골재와 불도저 등 모든 것을 알아보고 진행하기로 했지만 24명 중 5명만이 돈을 내어 6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은 이곳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각 나라와 지역별로 사역의 방법은 다를 것이다. CHE선교가 가장 현명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게 된다.

• 개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

CHE선교는 교육을 위해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기회도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강성한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소말리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문묘야야 부족이라는 무슬림 부족이 있다. 그곳에 한 선교사는 십여 년간 교회와 학교, 보건소, 공용 화장실 등을 건축하는 사역을 해왔다. 처음에 부족 장로들이 학교 건축을 요청했으나 교회를 먼저 짓는 조건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장기로 사역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열매가 없자 기독교 교육을 하는 조건으로 유치원 시기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부족은 기독교 교육을 반대했지만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를 열지 않겠다고 하여 받아들였다. 이 부족은 다른 부족이 더 개발되는 것을 막고자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개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종족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다를 수 있고 복음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소말리아 종족에서 우물과 화장실을 설치해 회심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선교사가 철수하면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회복 사역

• 회복 사역이란?

여러 분야의 회복사역이 있지만, 여기서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역을 말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쟁, 지진, 태풍, 화재 등의 대형 사고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간, 사고, 폭력, 이별 등의 비교적 작은 재난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유증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충격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몇 주 또는 수개월이 지나면서 현저히 완화되는데, 이 중 20%는 사라지지 않고 트라우마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재난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집단 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체험하거나 죽음 직전의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재난을 경험하더라도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재난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 그들의 가족 들은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증을 경험하고,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 **회복사역이 꼭 필요한가?**

한번 마음에 입은 충격은 사라지기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충격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문제가 된다. 만약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한다면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것이 중요하다. 트라우마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증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재난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않는 한 끝났다고 할 수 없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재난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 **회복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

회복사역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좋은 사역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복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가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해도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케냐에서는 ‘하쿠나마타타’라는 문화가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이들은 ‘하쿠나마타타’라고 답하곤 한다. 3개월 전 필자의 교회에 다니는 한 아이가 말라리아로 병원에 가는 길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에게 안부를 물으니 괜찮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여러 명의 어머니가 있거나 재혼을 한 가정에서 자란다. 대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편이다. 이런 문제들로 생활이 어렵고 학비를 내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하쿠나마타타’라고 말한다.

회복사역은 중요하고 복음 전파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전문가가 아니며, 할 수 있다면 회복사역 세미나 또는 수련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한 선교사는 이런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역 교회에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들은 금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긴급구조, 개발, 회복사역 모든 분야는 사역에서 필요하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

회복사역은 중요하고 복음 전파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Q&A/Summary of discussions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1. 긴급구호사역은 복음 전파에 앞서,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긴급구호사역은 대부분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본연의 사명을 따르는 것에 앞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의 1차적인 필요를 보고 진실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구호사역은 필수불가결한 사역이 되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많은 국가들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기본적인 위생, 방역물품도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교회, 여러 기관과 단체의 원조를 통해 방역물품의 보급이 급선무인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3. 긴급구호, 개발, 회복사역 등 총체적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1차적인 필요를 위한 원조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제자로 양육하는 총체적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구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계기를 마련한다

현실적이고 긴급한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구호사역을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전파의 기회로 삼아 구호와 동시에 그시드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5. 긴급구호를 통해 현지인, 현지 사역자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선교사는 긴급구호를 통해 현지인과 현지인 사역자 및 현지 기관,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긴급한 사역 지원뿐 아니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된다.



Starting over the things I dreamed of a long time ago

오래전 꿈꿨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때

RC 발제 손충성 선교사 / 터키

지난 15년간 세계적으로 난민 이주민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난민의 수는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뜸해졌다. 그렇지만 백신 공급이 늘어나고 국제적인 노력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이주민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어려운 환경, 질병, 가난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자국을 떠난 난민들의 지속적인 이동으로 인해 난민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난민과 이주민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난민들과 경제적인 이유로 생겨나는 이주민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을 실천하는 사역과 더불어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역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난민이란?

난민(Refugee)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난민의 정의는 1951년 난민 협약, 1967년 난민 의정서 및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터키의 난민 현황

이주민이란?

국가 내 혹은 국경선을 넘어서 단기 또는 영구적인 기간 동안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본래 거주하던 곳을 떠나는 사람을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00년 60억 명에서 2020년 77억 명으로 28% 증가한 데 비해, 동일한 기간 이주민 수는 1억 5천 명에서 2억 7천 명으로 8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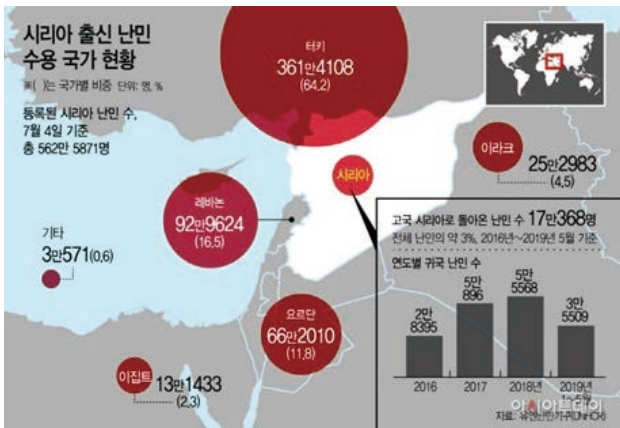
전 세계 난민 현황

2020년 6월 기준으로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집계에 따르면, 8천만 명의 난민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전체 난민 숫자 8천만 중에서 4,570만 명은 난민 발생국가 내의 난민이며, 2,960만 명은 자국을 떠난 난민, 420만 명은 망명을 원하는 난민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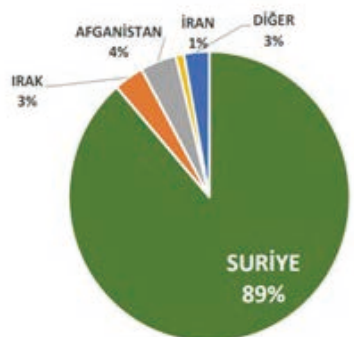
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사태로 인해 터키 내 난민 숫자는 급증하게 되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2018년 3월까지 약 35만 명의 사망자, 300만 명의 부상자, 1,100만 명의 난민(해외 540만 명, 국내 610만 명)을 양산하면서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사진과 같이 2018년 12월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은 3,611,834명에 달한다.(2020.12.6 기준 3,639,572명) 현재 터키 내 시리아 난민들의 인구별 구성을 보면 0-18세 아이들은 47%, 0-18세 아이들과 여성은 70.8%, 15-24세 청년은 21.6%(2019년 15.5%, 난민촌 거주 1.6%)로 나타난다.

터키 내 난민들의 국가별 구성은 아프간 172,000명, 이라크 142,000명, 이란 39,000명, 소말리아 5,700명, 기타 11,700명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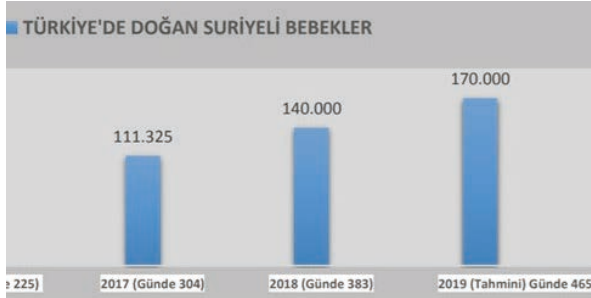


터키 내 난민들의 국가별 구성
TÜRKİYE'DEKİ KAYITLI ULUSLARARASI KORUMA SAHİBİ/BAŞVURU SAHİPLERİNİN GELDİKLERİ ÜLKEYE GÖRE SAYILARI (AĞUSTOS 2019)



난민들의 정착화

코로나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며 7-18세까지 취학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은 2019년 9월까지 터키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45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볼 때, 시리아 난민은 유럽으로 이동하지 않고 터키에 정착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터키 내에서 출생한 시리아 아이들 연도별 통계

터키에서의 난민 사역 형태와 현황

• 이란 난민 사역

터키 내 이란 난민 사역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광 등의 이유를 포함한 터키 내 유동 이란인들은 약 백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중 39,000명이 정치, 종교,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이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터키를 거쳐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터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70%의 이란인들은 살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터키 내 이란 난민 사역은 구제보다는 전도 및 교회 개척, 지도자 양성 등의 기본적인 기독교 선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터키 내 이란인 교회 공동체는 터키 각 지역에 약 150여 개가 있으며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선교단체 Elam이 선교활동의 30~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는 이란 현지인이 사역

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있고, 이란인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도 20~30 유닛 정도가 있다.

초기에 이란 난민들에게 구제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돕는 사역도 필요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복음전도와 교회개척 등 본질적인 사역을 진행한 것이 이란 난민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전도와 예배 사역을 통해 짧은 시간에 터키 내 6,000여 명의 신자가 생겨났고 150여 개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2-30명의 외국인 사역자들도 이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TIM에서는 이영광 선교사가 에스키셰히르에서, 김바나바 선교사가 트라브존이라는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란에서 터키로 사역지를 옮긴 채복음 사역자가정이 터키에서 페르시아 사역을 시작했다.

• 아랍권 난민 사역

아랍권 난민 사역에는 가정 모임을 포함하여 20여 개 교회와 300여 명의 신자가 있다. 난민들의 숫자와 지난 10년간의 사역 기간을 돌아볼 때 사역의 열매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아랍권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다른 나라에서의 난민 사역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구제사역

터키 내 아랍권에 해당하는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는 사역이다. 도시나 난민 캠프촌에 살고 있는 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공급해 주는 구제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 대체로 재정은 외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는 긴급 난민지원을 통해서 터키의 약 200가정에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 밀가루, 기름, 설탕 등을 전달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역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시내에 센터를 세우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비정부 사설 캠프에서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터키의 난민 포용 정책으로 난민들 대다수가 터키 학교로 흡수되었고, 그나마 있던 난민 교육 프로그램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 센터를 통한 직업 교육 및 여성 교육 사역

청년 및 여성들에게 직업교육, 언어교육 등을 통해 터키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역이다. 난민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무료 급식부터 의복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교회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역

한국, 미국 교회가 터키 내 시리아 교회와 연결해서 시리아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신앙적 성숙을 위해 훈련을 지원하는 사역이다. 2018년부터 온누리교회는 터키 내 시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생활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해왔다. 경제적 자립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게 한다. 온누리교회는 터키 내 시리아 교회에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 가정세미나와 일대일 세미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난민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터키 난민 사역의 문제들

터키의 난민 사역은 이란 난민 사역을 제외하고는 난민의 수에 비해 사역의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다.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의 문제는 무엇인가?

• 첫째, 언어적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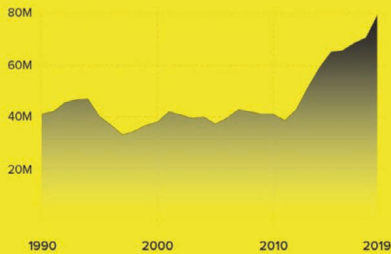
어떤 사역이든 기본적으로 사역 대상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다. 터키에 난민이 가장 많지만 시리아 난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로 훈련할 수 있는 아랍어, 페르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역자가 부재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란 사역의 경우에는 이란에서 온 외국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Elam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이란인 현지인들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한계를 넘어선 이란 사역은 현재 이슬람권에서 획기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TRENDS AT A GLANCE

79.5 MILLION

FORCIBLY DISPLACED WORLDWIDE

at the end of 2019 as a result of persecution, conflict,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 26.0 million refugees
 - 20.4 million refugees under UNHCR's mandate
 - 5.6 million Palestine refugees under UNRWA's mandate
- 45.7 million internally displaced people¹
- 4.2 million asylum-seekers
- 3.6 million Venezuelans displaced abroad

¹ Source: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전 세계 난민 현황(2019)

- 둘째, NGO와의 구별성이 없는 구제, 기술 전수, 교육 사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터키에서 진행되는 사역은 대체적으로 구제 중심의 사역이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구제에만 그치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구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구제사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나 사람을 충원하는 것에도 현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셋째, 시리아 쿠르드 난민 문제와 난민에 대한 터키 국민의 반감

시리아 난민 중에는 많은 수의 쿠르드계 난민들이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서도 아랍계열과 쿠르드계 난민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터키는 오래전부터 쿠르드족과의 갈등으로 터키 정부는 쿠르드계 난민들을 접촉하는 것을 꺼려 한다. 따라서 교회나 사역자가 시리아 난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역의 변화와 방법

- 난민, 이주민 교회 개척을 위한 지역(터키) 교회와의 파트너십

시리아 난민 교회가 개척될 때, 이미 개척된 터키 교회가 물질적, 영적으로 신규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 지도자를 멘토링 해주는 모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모임이 활성화되고 시간이 지난 후 난민들이 영적, 양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때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 본격적인 시리아 난민 사역을 준비한다. 이스탄불 열방부흥교회를 비롯해 터키 내 여러 교회들이 시리아 난민 교회 개척을 위해 이러한 방면으로 돕고 있다.

- 영어예배를 시작하라 - 기존교회를 다민족교회로 변화(열방부흥교회와 GTC)

- 난민 이주민들의 정착화로 현지어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에스키셰히르 하늘동산교회와 앙카라 이란교회)

• 연합사역을 이루자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있는 터키,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미 난민 교회를 개척해서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들과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과 제자양육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고 말씀을 배우면 좋겠다. 또 다른 제안 사항으로는 Onnuri 난민,이주민 지도자학교(ODLS: Onnuri Diaspora Leader’s School) 사역을 온누리교회와 TIM사역자들이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 DAWN(Diaspora Awakeing Worship Network) Movmenet에 참여하는 것이다. DAWN은 국가를 초월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현재 터키, 시리아, 이란 DAWN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척 - 비전 공유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결론 : 나아가야 할 방향

과거 난민 사역을 돌아보면 구제를 통한 복음 전도라는 방법에만 치우쳐 있었다. 전도와 양육을 위한 아랍어권 사역자의 부재, 함께할 현지인 사역자의 부재, 정착과 생계를 위한 난민들의 시급한 필요 등의 이유로 구제 사역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역에서는 빠르게 정착화되고 있는 난민 이주민들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를 통해 이방 나라 가운데 자신들의 민족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기 바란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이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다. 이제 오래전 꿈꿨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이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다.



Missions for refugees & migrants Mission with Local Churches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난민, 이주민 선교

현장 발제 한갈렙 선교사 / 이라크

필자는 이라크 K 지역에서 2020년 여름부터 구제사역을 시작했다. TIM 본부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선교지역에 구제활동 긴급지원을 하면서 구제의 문이 열린 것이다. 본부의 이러한 민첩한 현장지원에 감사드린다.

이 발제문에 제시된 난민선교 구상은 1년 남짓의 짧은 경험에서 나온 산물로서, 노하우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1년 전 조그만 구제사역이 디딤돌이 되어 이제는 난민캠프 안에서 구제사역을 정착화하는 단계가 되고 있다. 이점에서 관심자들에게 이 과정이 벤치마킹(benchmarking)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라크 난민 상황

현재 이라크에서는 두 그룹의 난민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or IDP)과 시리아 난민이다. 난민의 대다수인 IDP는 이라크의 다수인 아랍계로서, 이웃 나라들과의 오랜 전쟁과 IS(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테러집단과의 전쟁으로 인해 2015년 이후 많은 국민들이 고향과 집을 떠나 이곳 K지역으로 피난 와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IDP는 시리아 난민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시리아인들은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제적 관심을 받지만 IDP는 자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초 하에 국제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리아 난민 캠프는 현재 전기공급을 받고 있지만 국내 난민 캠프는 전기 공급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

현재 이라크 난민 인구 총 200만 명 중 140만 명이 K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난민들 중 30%만이 난민 캠프 안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전체 시리아 난민은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난민들을 위한 외국의 경제지원이 많이 중단된 상황이다. 코로나 전에는 난민을 위한 예산의 25%가 외국자본이었으나 현재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2017년 IS와의 전쟁 종식 후 줄어들고 있던 국제 지원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옆친 데 옆친 격으로 급감했다.

난민촌에서 가장 필요한 구제품으로는 전기, 물, 의료, 통신, 교육, 의류, 석유난로, 매트리스, 그리고 식료품 등이다.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는 모술 근교의 H지역으로, IDPKamp 5개가 모여 있고, 한 캠프 당 보통 6~7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캠프 안에 절반은 미서류 가정들이다. 가족과 친척들이 IS와 관련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이들은 정부와 사람들의 핍박을 우려해 관계를 지우기 위해 미서류 가정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가정들 중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대다수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해 다른 난민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가정의 아이들은 교육을 거절당하여 청소년의 나이지만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

이들은 성년이 되면 생존을 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IS와 같은 테러조직에 가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IDPKamp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구제는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한 또 하나의 주님의 손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모술 지역 국내 난민(IDP) 캠프



현재 진행 중인 난민사역

• 시리아 난민 청년 사역

필자 부부는 지난여름 난민캠프 밖에서 거주하는 시리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구제사역을 시작했다. 시리아 청년들 중 많은 수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웨이터나 가게 점원과 같은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외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중 코로나 사태로 직장마저 잃고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당시 그들을 돕기 위해 식료품과 렌트비 보조 구제사역을 시작했다.

이라크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필자 부부의 주 사역 언어는 영어였기 때문에, 적합한 구제 대상으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시리아 청년들을 찾게 되었다. 언어가 통해야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부부가 섬기는 International Alliance Church (IAC) 교회에 다니는 한 시리아 청년을 통해 어려운 시리아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선별된 청년들을 카페에서 만나 1시간 정도 교제한 후 식료품과 렌트비를 지원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교제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2달 동안 총 15명에게 사역했다. 그 후 서로 마음이 통하고 복음에 열려 있는 청년 5명을 초대해 Zoom 어플로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IAC교회 스텝과 시리아 난민가정 방문



Zoom으로 성경공부를 함께하던 5명 중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그 중 2명은 현재 일대일 제자 훈련을 마친 상태이다. 이들은 시리아에 있을 때 이슬람교리를 잘 지키는 종교적 삶보다는 세속적인 무슬림을 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슬람의 교리에 세뇌되지 않아 어렵지 않게 일대일제자양육 교재 내용을 소화하며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슬림일지라도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서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서 이슬람 문화를 타문화와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의 편협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맞지 않는 모순된 전통들에 대해 의구심과 회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종교인 기독교에도 마음을 열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개종한 후에도 무슬림이 지배하는 아랍문화권을 벗어날 수 없어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종종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도 자신을 예위싼 이슬람 문화권에서 지내야 하며 주위 사람들의 핍박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도 전에 크리스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영어 구사능력은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영어 소통을 통해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지에서 사는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용이해 고립된 생활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공부를 함께하던 시리아 청년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큰 어려움이 생기자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한 쉼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쉼터 사역을 통해 새로운 시리아 청년들 또는 쿠르디청년들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들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주거지를 해결해 주고, 관계를 발전시켜 제자양육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이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예배 출석을 독려할 수 있었다.



난민캠프 생활필수품 구제지역

온누리 일대일 양육 교재로 진행한 일대일 제자양육은 기대보다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그들이 잘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의 어려움 중 첫 관문은 복음의 시작이며 중심이신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그들은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중 한 사람으로 세뇌되어 있다. 이런 거짓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삼위일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2달간 성경공부를 했다. 그 후 일대일을 진행하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소화하고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렸다.

•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업

필자 부부가 섬기는 IAC 교회는 구제 도움을 얻기 위한 난민들이 거의 매일 방문하고 있다. 교회는 미국 NGO나 선교 단체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시리아 난민들과 국내난민들에게 식료품 구제를 위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여름 온누리교회가 보내준 긴급구제 지원으로 한 달간 IAC 스태프들과 함께 캠프 밖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렌트비와 식료품 지원, 의료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였다. 필자 부부는 난민 가정을 방문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했는데, 우리의 모습에 IAC교회 리더들과 스태프들이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후 IAC 교회가 구제를 위한 가정 방문 시 이전과 달리 전도에 신경 쓰는 모습이 있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평소 신앙생활이 영적 도전이 되는 것이다. IAC교인들에게는 어려운 이라크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복음의 산증거가 되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구제사업을 할 때 지역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선교사들의 평범한 일상을 관심 있게 보는 그들에게 우리는



난민캠프 생활필수품 구제지역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계시하는 산 증거가 된다. 또한 영적인 훈련과 도전이 되는 동시에 잠자고 있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우는 촉매제 역할이 된다.

구제품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난민들 중에는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IAC는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스태프들은 구제를 위한 방문하는 자들 중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은 후 재방문하도록 종용하고, 궁금한 것을 적어오면 질문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진행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실한 구도자를 가려내는 전략이다. 요한복음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간혹 구제품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눈속임으로 복음의 관심자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한 스태프에 의하면 관심자들 중 요한복음을 읽은 후 일대일 양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10% 정도 된다고 한다. 99%가 무슬림인 사회에서 이 비율은 매우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전 IAC교회 예배인원은 약 250명 정도였는데, 그중 50% 이상이 난민 신분임을 감안할 때 난민들의 마음은 열려 있는 추수밭과 같다.

필자 부부는 IAC 스태프들에게 아랍어로 번역된 온누리교회의 일대일 양육 교재를 보급했다. 작년 M 담임목사님과 처음 일대일 양육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단된 뒤 현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M 담임목사님은 일대일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태프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용하도록 했고, 필자 부부는 이것을 스태프들을 양육해야 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라크 교인들에게도 이 교재가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IAC 안에 일대일 양육을 수료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배출될 것이

고, 이라크에서는 처음으로 일대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탄생할 시간이 올 것이다.

• 의료구제사역

난민들의 시급한 필요 중 하나는 의료구제인 것을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한 NGO를 연결해 의료품과 코로나 방역제품, 그리고 의료기기들을 컨테이너로 운송해오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100만 불 이상의 가치의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지 NGO단체인 Barzani Charity Foundation(BCF)의 도움으로 이미 K지역 자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이 첫 번째 의료 컨테이너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1년에 3차례 정도 의료 컨테이너를 운송할 계획이다.

BCF는 필자가 현재 구제사역을 하고 있는 K지역 안에 35개의 난민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큰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인데, 이 이목을 끄는 프로젝트로 인해 정부 고위 관리들과 유대 관계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

난민들의 시급한 필요 중 하나는
의료구제인 것을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한 NGO를 연결해
의료품과 코로나 방역제품,
그리고 의료기기들을 컨테이너로
운송해오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IAC교회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라크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 또한 동방정교주의의 카톨릭 교단이 복음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IAC교회는 작년년부터 정부로부터 새 성전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매년 마지막 승인 절차에서 거절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슬람세력이 아닌 카톨릭교단의 방해 때문이었는데, 카톨릭 교인들이 복음주의 교회로 전향하면서 교세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통해 복음주의 교회를 향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컨테이너 운송 프로젝트는 IAC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 의료 컨테이너 운송이 IAC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IAC가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IAC가 건축 허가를 받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A지역 주정부 지사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 의료구제와 교육 구제를 알리고 그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정부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 카톨릭교단의 방해로 닫고 새 성전이 지어지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이라크에서 유일한 신학교를 세우고, M목사가 오랫동안 꿈꾸어 온 A지역 소나타 부흥집회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최근 이 일을 위해 필자 부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이곳의 환대문화는 우리의 입지를 높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이라크 평화, 재건 사단인 자이툰 부대가 2004년부터 4년간 주둔하면서 한국인의 위상은 높아졌고, K-pop과 K드라마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한국을 동경하는 분위기도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배경 위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

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것을 믿는다.

• 난민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개인이 현지 난민캠프에 들어가 구제사역을 하는 것은 이라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UN기구와 같은 국제적인 NGO단체와 일을 해왔던 정부와 난민캠프 입장에서는 개인 신분의 작은 구제사역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부부는 시리아 난민캠프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해당 기사를 만나게 된 것이 교육 구제사역의 계기가 되었다. 마침 기자는 미국 BCF라는 NGO단체의 봉사자였고, 필자 부부의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BCF 난민캠프 리더들과 만나게 해주었다. 필자 부부는 캠프 내 시급한 구제를 도우면서 교육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었다. 마침 코로나로 많은 NGO들이 진행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떠나버린 직후라 난민 캠프 아이들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기대와 정착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TIM본부의 요청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열방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독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 홈스쿨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여러 사정으로 학교 설립을 하지 못했지만, 필자 부부에게 주신 교육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언젠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NGO봉사자는 난민캠프에서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코로나로 인해 열방에서 진행되던 구제사역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난민캠프 교육 구제 사역

BCF는 난민캠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한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돕고 있다.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사를 채용하도록 캠프 안에서 사람들을 선별해 보내주는 등의 도움으로 현재 교육 프로그램은 잘 정착해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Kitkit School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 외무부 소속 KOICA가 Co-sponsor이며 태블릿을 이용한 자기주도학습 방법이다. 전문적인 교사가 필요 없는 커리큘럼 방식이기 때문에 교사가 부족한 난민캠프 안에서는 최적의 교육 구제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교사훈련에 있어서도 태블릿 사용 방법과 간단한 개요 설명만 해주면 누구든 교사로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와 같이 섬기는 교사들 중 절반은 난민캠프 안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의 월급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유치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 처음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에게도 수업이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열방에서
진행되던 구제사역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다음 난민캠프 교육의 2단계는 WAINBOX라는
프로그램이다. 초,중,고 전 과정을 휴대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세
팅 중에 있다. 물론 홈스쿨 커리큘럼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자기주도학습의 장점이 있다. 이 WAINBOX
는 열악한 교육 환경의 선교지를 위해 한국 선교단
체가 만든 교육용 플랫폼이다.

미니 서버가 장착되어 있어 캠프 지역 내 와이파이
로 어디서나 공부가 가능하며, 내부 와이파이 연결
이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과의 연결 및 인터넷 검색
은 제한되어 있다. 하드 드라이브(SSD)에는 국제
교육전문 NGO가 수십 년간 개발해온 교육 프로그
램 등 수많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이미 다운로드 되
어있어 우리의 상황에 맞게 교재들을 선별하여 커
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기독교 홈스
쿨 교재들이 이미 다운로드 되어있어 아이들이 기
독교 배경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번 여름 스태프들과
커리큘럼을 만들 계획이다.

난민캠프 Kitkit School 학습 교실



한 캠프 당 200명의 학생들을 등록받아 교육하고, 앞으로 3년간 3개의 난민캠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난민캠프를 운영하는 BCF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5개년 장기 계획을 세워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며, 그 후 캠프 자체적으로 우리의 도움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스태프들을 훈련할 예정이다.

캠프 안에서 직접적인 전도는 현재 불가능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산 소망을 품고 사랑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교육 목적인다고 하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 가정에 방문해 식료품 구제를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우리와 같이 봉사하는 스태프들은 모두 무슬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첫 전도 대상자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스태프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K 형제는 BCF의 스태프이며 현재 H지역 U3 난민캠프의 Activity 센터의 책임자인데 하루는 자신이 복음에 열려있다는 말을 조심히 건네왔다. 스태프 중에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회의감으로 기독교의 결혼관을 궁금해 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카운셀링하기도 한다.

캠프 안에서 직접적인 전도는 현재 불가능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BCF단체와 연결해준 프리랜서 기자와 함께



결론

코로나로 인해 이라크 안에서 거의 모든 NGO와 UN단체들은 구제활동을 접고 이라크를 떠나버렸다. 그로 인해 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이것은 구제사역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도 의미한다. 예전에는 큰 NGO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구제사역들도 지금은 개인 사역자들에게 많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구제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난민캠프 관계자들은 새로 시작하는 구제활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난민 선교에 있어 현지 교회와의 동역은 여러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로서 그들과 매일 삶을 나누고 일상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선한 영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교사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우기 원한다.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적 침체 속에 있던 그들을 깨우고 복음전도에 관심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훌륭한 멘토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구제 사역은 팀 선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이것은
구제사역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도 의미한다.

더불어 교육을 통한 난민 선교를 제안한다. 어디에서나 교육은 종교를 떠나 환영을 받는 사역이다. 난민들 사회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아이뿐 아니라 부모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지므로 가정 방문과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 기독교 교육인 줄 알면서도 자녀들을 크리스천 학교에 보내는 무슬림 부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기독교 홈스쿨 교육은 세계관이 성립되어 가는 나이의 학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고 이라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자라게 한다.

운영하는 학교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모두 갖출 수 없을 때,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는 타지역 선교사와 온라인 교육협력이 가능하다. 최근 터키에서 교육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교실과 미술교실을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온누리 선교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구상해본다. 필자 부부의 경우 무슬림 난민캠프 안에서의 전도전략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복음전도전략인지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과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APEN과 같은 한인 구제사역 선교사 모임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자유롭게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온누리 선교사들의 장이 필요하다. 함께 고민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실제적인 조언과 제안을 나눌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킹은 온누리 난민 선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유럽에도 온누리 난민 선교 베이스가 있다면 난민 사역에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 예상된다. 유럽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을 위한 난

민 사역과 교회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전 우리가 양육하던 시리아 청년은 독일로 밀입국하기 위해 이라크를 떠났다. 떠나기 전날 우리집을 찾아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양육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현재는 이란과 터키를 거쳐 그리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터키로 밀입국했을 때 이스탄불의 손총성 선교사의 도움으로 영어예배 교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 후 아테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있는데, 손총성 선교사가 소개해 준 타단체 선교사의 사역지였다. 이렇듯 난민들은 이동이 잦아 지속적으로 삶을 나누면서 제자양육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계속 신앙을 지키며 믿음이 자라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럽에 온누리 난민 선교센터를 세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아랍 난민들은 유럽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이다. 선교사를 통해 양육 받은 성도들이 유럽에 가면 온누리 난민 선교센터를 통해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난민센터는 난민선교를 하는 선교사들 간의 네트워킹과 긴밀한 공조를 유도하는 장이 될 것을 믿는다.

또 하나의 전략으로는 서구 NGO나 선교단체와의 네트워킹이다. 실제로 이곳에 와서 헌신하는 선교사역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이라크의 현실이다.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는 미국의 큰 기독교 NGO나 선교단체이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교회를 돕거나 현지 사람들을 통해 큰 규모의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과 네트워킹하며 우리의 사역을 알리고 필요한 재정을 후원받을 수 있다면 서구가 도움이 되는 좋은 난민 선교 전략이 될 거라 생각한다.

실제 사례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베이스의 한인 선교사들에게 미국의 한 선교단체 관계자가 찾아와 큰 액수를 후원할 테니 구제에 써 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큰 액수에 부담을 느껴 거절했다고 한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서방 선교단체나 NGO단체와의 밀접한 네트워킹은 우리 사역의 범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 부부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프 교육 사역이 잘 정착되고 다른 캠프에 두 번째 학교를 세울 적절한 시기가 오면 현지의 서구 NGO나 선교단체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IAC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를 찾아가 우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재정적 후원을 통한 동역을 제안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각 선교지에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큰 NGO단체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구상해 본다. 특별히 BCF와 같이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는 현지에서 구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동역자이자 조력자가 될 것이다. 한 예로 현재 BCF는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우리의 NGO단체 등록 절차를 돕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2022년부터 우리의 이라크 체류 비자도 신속히 수속해 주겠다고 약속 해둔 상태이다. 그 어려운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동역자는 현지 NGO단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올해는 IAC교회를 통해 1년 종교비자를 받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새로운 법령이 제정 되면서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BCF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짐을 덜게 되었다. 그만큼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현지 NGO단체 또는 외국 단체와의 친밀한 네트워킹은 구제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난민캠프 학교 봄학기 종강식에서



Q&A/Summary of discussions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1.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개념과 용어 구분

난민은 이주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쟁이나 테러 등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생명과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본국을 떠나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외의 사유로 경제적인 고려나 자발적으로 본

국을 떠나는 경우는 이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아랍의 봄을 시작으로 ISIS, 시리아 내전, 코로나는 하나님의 흘으심을 뜻한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증거 사역은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랍 지역을 흔드시고 흠으셔서 무슬림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과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 받을 만들고 계신다. 지금은 흠어진 무슬림 난민들을 추수하는 시기이다.

3. 무슬림의 회심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오늘날 여러 상황과 환경은 난민, 이주민들에게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지만, 강력한 무슬림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

4. 난민과 이주민 대상 사역에는 교육 사역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난민,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영어를 비롯한 타지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 사역은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접촉해 영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도울 뿐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5.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통해 이주민이 선교사로 역파송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이 온누리교회 M미션 이주민 사역을 통해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신학공부 후 고국의 선교사로 역파송되고 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난민, 이주민이 거주하는 선교 현장의 다수 국가에서도 동일한 사역이 가능할 것이다. TIM은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사역과 함께 터키 거주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연계, 지속하고 있다.



Until democracy blooms in Myanmar

미얀마 땅에 민주주의가 꽃 필 때까지

이상오 선교사 / 미얀마



미얀마는 5천6백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5개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공식적으로 135개 종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종족 국가로서, 주종족인 버마족(4,000만)을 비롯해 산족(500만), 카렌족(400만), 라카인족(220만), 몬족(110만) 등 수많은 소수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87%), 기독교(6%), 이슬람교(4%)로 불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 6%는 대부분 친족, 꺼친족, 카렌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미얀마 정권의 변화와 2021 쿠데타 사건

오랫동안 군사 정권을 유지해왔던 미얀마는 2011년부터 군장성 출신인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2015년,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첫 번째 민주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5년간 미얀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지난 4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군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국회 의석의 25%를 고정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나 입법활동 시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총선에서 다시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당이 압승을 하면서 차기 행정부를 이끌어가게 되었고 국회 의석을 70% 이상 차지하면서 다른 소수 야당과 합의하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인식하여 2021년 2월 1일, 총선 이후 첫 국회가 열리기 직전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쿠데타에 성공했고, 미얀마의 민주 정부는 5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다. 9월 7일, 소수종족 무장단체들과 시민 방위군으로 이뤄진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에 저항할 것을 선포하며 내전을 시작했다. 군부 주요 시설에 대한 폭발물 공격과 군부 군인들과의 총격전이 벌어지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군부는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자행했다. 환율은 치솟았고 물가는 150%까지 오르며 점점 서민들이 살기에 버거운 상황이 되고 있다.

코로나와 쿠데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지금이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전국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매주 월요일 조식을 금식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인 예수님께 돌아오길 소망한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기도제목

1. 미얀마 국민들이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2. 코로나와 쿠데타가 속히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꽃 피는 나라 되게 하소서
3. 각 종족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켜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May true peace comes down to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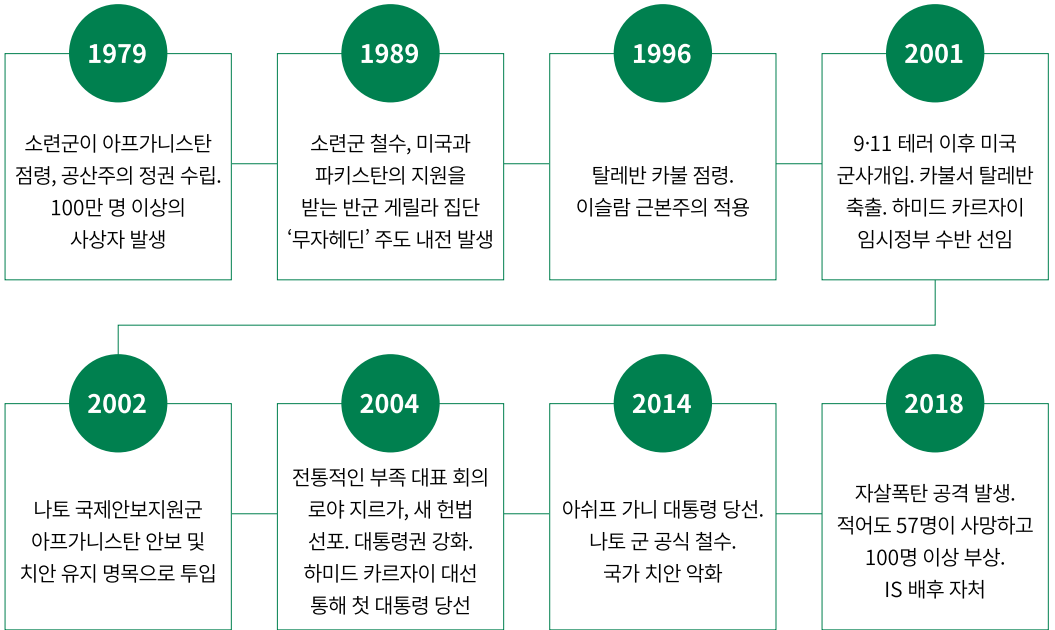
차요셉 선교사 / 타지키스탄



아프간 버미안 지역에 사는 하자라 종족 아이들

아프가니스탄은 1979년 소련에 점령당한 후 반군 게릴라 집단 ‘무자헤딘’ 주도 내전과 ‘탈레반’의 점령으로 이슬람 근본주의로 통치되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던 탈레반은 2001년 미국에 의해 카불 등 주요 지역에서 축출당한 후 새 헌법을 선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가를 통합하고 안정화하는데 실패했다. 특히나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며 안보를 책임 지던 NATO 국제안보지원군이 떠난 후, 탈레반, IS 등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며 국가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국가 공권력은 아프가니스탄의 전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 카불 근교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카불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재집권하기까지 40년 가까이 전쟁에 휩싸여 있었다.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내전 상황



미국과 탈레반의 20년 전쟁의 종전

2021년 8월 30일(현지시간) 미군 철수 후에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미국과 탈레반의 전쟁은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종전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간 전쟁에 총 2조 달러(약 2327조 원)를 지출했고, 미군 희생자는 2400여 명에 이른다. 아프간 정부군 6만 6000여 명, 탈레반 5만 1000여 명, 아프간 민간인 4만 700여 명 등까지 합쳐 모두 약 17만 명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탈레반이 이끄는 과도정부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뭄과 경제난으로 최악의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겨울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과 아동의 인원은 사라지고 있다.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탈레반을 적으로 규정한 IS의 테러로 인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자살 폭탄테러로 인해 현지인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 탈레반은 마약 생산과 수출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아프간산 마약은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노력

온누리교회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모임이 시작됐으며 현지 조사팀도 파견했다. 이 조사팀에는 故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도 함께 동행했다. 하 목사님은 현지에서 아프간 정부 각료와 만나 전략을 구상하고 학교와 보건소 건립,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참여키로 했다. 관련 NGO를 설립하고 사역자를 파송하여 NGO사역을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전 세계에 탈레반의 존재를 강하게 각인시켰던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세계에 더 강하게 각인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 42장 3절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겠다.

아프간 북부 지역 마을 길



기도제목

1.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셔서 이 두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누룩과 같이 들풀과 같이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사 41:10~12)

2. 탈레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탈레반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갈망하고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탈레반 내부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뒤바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44)



With faithfulness and holiness, let's keep the fires burning

충성과 정결함으로 사명의 등불을 지켜내자

Kolbin Maxim 선교사 / 러시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단기 선교사 훈련 강의

저는 1997년에 주님을 믿게 된 후 바로 신학 과정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우즈베크의 한 지역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이웃 마을에서 열리는 총회와 기도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젊은 날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모든 것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2000년도에 고향에서 800km 떨어진 자라프산(Zarafshan)이라는 도시에 파송되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사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몇 년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걸어온 모든 세월 동안 사명을 위해 살고 숨 쉬었습니다. 그 후 북부 우랄 지역 러시아로 갔다가 카자흐스탄을 거쳐 다시 러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Living Life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삶은 스트레스가 많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열정이 식었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 TP훈련을 제안받았을 때 기꺼이 훈련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훈련 첫 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Quiet Time” 강의를 통해 제 영혼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고, Life Map 시간은 제 과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회상하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주신 다음과 같은 격려를 기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 아나니 곧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선이요 악이 아니니라(렘29:11)” 제 삶의 지도를 그리시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큰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함께 훈련했던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간증도 이번 세미나에서 누린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과 상황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래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는 것은 항상 위기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Life Map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정결함을 덧입고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Life Map은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좋은 도구입니다.

저는 한국과 전 세계의 선교 운동의 역사에 대한 교훈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국 선교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 주변의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려졌는지!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 뿌려진 모든 것이 복음주의 운동의 큰 물결 속에서 일어나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TP 훈련 과정에서 다룬 모든 주제가 목회자를 준비하는 데 적절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 심리학, 멀티미디어, 지역 탐험 등에 관한 주제는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께 충실하고, 결코 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도구인 QT가 도움이 됩니다.

QT에 대한 강의는 영혼이 새로워짐과 동시에 내 삶에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특히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순간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QT는 말씀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며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이며 큰 축복입니다. 실제로 묵상을 통해 말씀은 더욱 확장됩니다. 이번 훈련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강사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The power of the gospel comes by hearing

들을 때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

Valeriy Kim 선교사 / 러시아



단기 선교사 훈련 기간 동안 잊지 못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마음의 선반에 올려놓으신 주님과 모든 스텝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며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삶의 지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그리고 저를 사역으로 부르기 위해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결국 저는 그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삶에 일어난 모든 변화는 주님이 예비하신 다른 단계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큰 죄인임을 알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에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새로운 힘을 얻은 것처럼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대화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경험하셨고 요구에도 응답하셨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듣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절반의 싸움이 됩니다. SYIS 강의를 통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관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되며 이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유익과 지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후 친한 소꿉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낯선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린 2시간 동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전화 통화를 할 때 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님께 대해 이야기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친 후에 저는 이제 친구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을 통화하며 연설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지지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친구는 대화 중에 자신이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놀랍고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에 가자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러시아어를 쓰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나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삶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모든 강의와 주제들은 꼭 필요하고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특히 한국 선교역사에 대해 배우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은 매우 용감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퍼즐을 맞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졌고,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사람들이 나타났고, 선교 사역과 함께 사회적 지원도 따랐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점진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직 수확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저와 우리 가족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대대로 1000지파에 이르기까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Valley & Anna 부부

Gospel to all peoples! Churches to all tribes!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31-336-1042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 America)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E-mail tima061204@gmail.com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537-0024 Osaka, Higashinari-ku,

Higashiobase, 3-chōme—9—11

E- Builder Building 3F

Tel +81-6-7220-9927